

부산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
3555,3705(병합),3732(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
상습사기),상습사기,업무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인
정된죄명상습사기)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3555, 3705(병합), 3732(병합) 사기(인정된 죄명 상습사기), 상습사기,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인정된 죄 명 상습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사기죄 내지 상습사기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다.

1. 상습사기

가. 2018. 7. 18.자 범행 [2018고단3555]

피고인은 2018.7. 18.00:17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

당의 술과 안주, 여성종업원의 유흥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8. 19.자 범행 [2018고단3705]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종업원의 유흥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 28.자 범행 [2018고단3732]

피고인은 2018.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 삼계탕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계탕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삼계탕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2018. 7. 28.자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범행을 포괄하여 상습사기죄로 의율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다.]

2. 업무방해 [2018고단3732]

피고인은 2018.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삼계탕을 주문한 후 약 1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갑자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놈들,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이 버 러지 같은 새끼들 조용히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2018고단3732]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 I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야이 새끼야, 더러운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업주인 위 I가 있는 자리에서 "L가 너거 서장아이가, 전화해서 지기줄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5, 2018고단3705, 2018고단3732 중 상습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피혐의자 경범죄 위반 이력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첨부)에

따른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3732(범죄사실 2항,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내지 상습사기로 처벌받은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유 없이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